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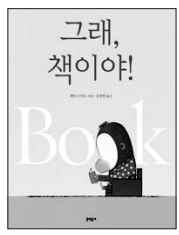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축구부에 들고 싶다=곡성 출신으로 꾸준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는 성병진(45)씨의 첫 동시집. 좌절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일상 속 성장을 진솔하게 담은 표제작 '축구부에 들고 싶다'를 비롯해 50여 편의 시를 6부로 나눠 엮었다. 이외에도 생명과 자연에 대한 경외를 담은 다양한 소재의 시들이 가득하다. <창비·8500원>



▲나도 편식할 거야=아이들의 편식문제를 재기 발랄하게 표현한 유은실 작가의 동화다. '편식은 어려워' 등 3개의 단편 연작을 통해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무거나 잘 먹어서 사랑받는 딸 '정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맛있는 음식은 오빠한테만 준다. 그래서 정아는 편식하기로 결심하는데... <사계절·7000원>



▲그래, 책이야!=그림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칼데콧상 등 여러 그림책 상을 받은 레인 스미스의 신작. 디지털 시대의 '책'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스마트폰이 범람하고 아이패드와 히트해도 역시 세상에 책만큼 재미있고 따뜻한 매체는 없다고 설득력 있게 속삭이는 그림책이다. <문학동네·9000원>



▲울고집='은 겨레 어린이가 함께 보는 옛이야기' 시리즈 다섯 번째 권. 고전소설 '울고집전'과 무주군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나쁜 짓만 일삼던 울고집이 짚으로 만든 가짜 울고집한테 크게 혼이 나고 사야 비로소 마음을 고쳐먹고 새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보리·1만1000원>



▲할머니가 달라졌어요=유치원생 꼬마의 눈으로 본 할머니의 연애담이다. 토요일마다 요리도 해주고 인형놀이도 함께하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발길이 뜸해진다.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컴퓨터 화면에 등록하고 최신 유행 바지를 산다. 휴대전화에 문자가 오면 손자들을 피해 구석에 가서 확인한다. <미래아이·9000원>



▲스위치-1 거미로 변신하라=영국 작가 알리스 파크스의 판타지동화 시리즈. 쌍둥이 대니와 조지가 관마다 한 가지 곤충으로 변신하여 펼치는 곤충 변신 모험담이다. 두 쌍둥이가 변신한 곤충의 모습과 행태가 세밀하게 묘사돼 곤충 세계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다. <웅진주니어·9000원>



▲나도 같이 놀고 싶단 말야=친구 '마브랑'과 놀고 싶은 '찰리'는 동생 '롤라'가 가끔은 귀찮다. 친구 마브랑만 놀고 싶는데, 자꾸만 롤라가 와서 방해하기 때문이다. 찰리와 롤라가 사이좋게 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국민서관·1만원>

▲라몰의 땅=인도에 전해오는 민담을 담은 그림책. 가난한 '라몰' 부부는 좁고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고 가꾸지만 늘 말라죽거나 시들고 만다. 어느 날 부부를 찾아와 허룻밤 잠자리와 음식을 부탁한 노인이 피리 하나를 주고 떠난다. 라몰이 무심코 그 피리를 부는 순간 주위의 모든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보림·1만1000원>

극한 절망에도 희망 놓지않는 인간들

회투 치는 고양이

이화경 지음



"점차 말(언어)을 잃어가는 세상, 형제·부부 간에도 소통이 부족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결국 성장하고 홀로 걷는 여인이라는 인간사를 위트 있게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장편역사소설 '꾼'이야기 하나로 세상을 뒤흔친 이화경의 책 읽어주는 남자'로 호평을 받았던 광주 출신 작가 이화경(47)씨가 신작 소설집 '회투 치는 고양이'를 출간했다. 2001년 '수화' 발표 이후 두 번째 내는 소설집이다. '회투 치는 고양이'를 수록된 9편의 작품 모두가 그 배경은 하나같이 우울하고 부조롭다. 극한과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화해를 논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 때문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표제작 '회투 치는 고양이'는 화급의 부회장이 되고서도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의무지 못해 자괴감에 방황하는 12살 소녀와 화투 패 하나로 인생의 교훈을 일깨우는 86살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경험하고도 애뜻하게 그렸다.

또 작품 초식은 위철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는 삶을 살다 남편으로, 남자라도 구실을 못하게 돼 추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형과 형 뒤에서 이를 지켜보는 주인공 남자와의 갈등을 통해 인간 실존의 가치를 논하고 있다.

결핵 때문에 학교에 가지못하고 홀로 성장한 '나'에게 수학 무리수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육촌 오빠에게 마음을 빼앗긴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무리수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사랑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도 여럿 실렸다.

비정한 장기수인 노신사의 순애보를 그린 '예사로운, 예사로운 사랑'과 현재의 한국과 과거 명나라 때를 오가며 시간간격 배경이 다른 두 별의 독립적인 사랑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불청 경옥지 수태일백이거'(不聽 竟欲之 受若一百而去) 등은 아련하고 따뜻한 사랑, 무모하지만 웅감한 구애(求愛)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담았다.

그런가 하면 '지구에 오신 걸 환영해요'에서는

자신의 생일에 초대받은 친구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비극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저지르는 자의 모습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 아름답지만 때론 집착이 돼 버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심부름을 해주는 여자 '린'의 일상을 담은 '로맨스 소설', 재혼한 남편과의 의사소통 불능을 뼈저리게 확인하며 자기존재의 확인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정을 떠난 중년 여인의 외롭고 쓸쓸한 삶의 궤적을 그린 '에어 베드' 등도 잔잔한 감동을 건넨다.

이번 소설집의 키워드를 '성장'과 '위안'이라고 말하는 이씨는 "타자와 세상, 관계의 단절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이치를 깨닫고 사랑(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웃다가 울컥,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고,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는 게, 그게 삶이라는 걸 이제 조금 알게 됐다"며 "이번 소설을 읽고 웃다가 울컥해 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밝혔다.

1997년 '세계의 문학'에 '등근이나팔꽃'을 발표하며 등단한 이씨는 십 년 넘게 대학에서 강의하고, 인도도 건너가 캘커타 대학 언어학과에서



광주 출신 작가 이화경씨가 2001년 '수화' 발표 이후 두번째 소설집 '회투 치는 고양이'를 펴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낸 책으로는 '나비를 태우는 강', '그림자 개', '조지아 오프스 그리고 스티글리츠', '울지마라, 눈물이 네 몸을 녹일 것이니' 등이 있다. <문학에디션 북·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스폰서 관점사' 거침없는 비판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김용원 지음



검찰 내부 조직을 비판한 책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용원(56) 변호사가 또다시 대한민국 법조계의 각종 병리에 메스를 들이던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를 펴냈다.

김 변호사는 전관에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거침없는 비판을 펼친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비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83쪽) 또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에 비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함께 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139쪽)

스폰서들에게 돌아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 다음은 사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저자는 스폰서 검사, 판검사구속을 낚아채는 판사 등 판검사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표현의 자유가 유린당하는 사법 현실도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매섭게 질책한다. <사교출판사·1만29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파란만장한 삶' 미천왕 이야기

고구려 1~3권

김진명 지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을 낸 베스트셀러 작가 김진명(54)씨가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고구려' 1~3권을 내었다.

그가 데뷔 이후 17년간 풀어온 끝에 마침내 선보이는 이 소설은 미천왕부터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대왕, 장수왕까지 고구려 시대 여섯 왕의 이야기를 그림 예정이다.

이번에 먼저 미천왕의 일대기를 담은 1~3권을 출간했으며, 앞으로 2~3년에 걸쳐 전체 13권 분량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미천왕은 왕손으로 태어났지만 도망자 신분으로 쫓기며 지내다 왕위에 올라 낙랑을 되찾는 업적을 세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이다.

역사에 친숙하지 않은 젊은 독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고투하지 않은 문체와 빠른 전개로 긴박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냈다.

소설은 또 중국이나 신라, 백제와 교류하고 다룬던 활적인 관계보다는, 한민족의 뿌리인 요하문명부터 이후 고조선을 거쳐 고구려에 이르는 종적 선상에서 고구려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시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고구려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지만 막상 알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어 아쉬울까 그리움이 있었다"며 "단순히 유희거버린 옛날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현실에 살아있는 고구려를 필생의 대작으로 쓰겠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서울·각 권 1만2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물들이 전하는 '홀로코스트'

베아트리스와 버질

얀 마텔 지음



2002년 부커상을 수상한 '파이 이야기'는 소년 파이가 겪는 227일간의 태평양 표류기다. '가벼운 옷차림에 신발 한켠을 잃은 소년 한명, 잠막이 하이에나 한 마리, 뱀굴 호랑이 한마리, 구멍보트 한척, 바다 하나, 신 한쌍'과 함께 표류하며 겪는 이야기는 진한 감동을 전한다.

'파이 이야기'의 얀 마텔이 9년만에 신작 '베아트리스와 버질'을 펴냈다.

저자는 겁에 질린 당나귀 베아트리스와 고민 많은 원숭이 버질을 등장시켜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소설의 화자는 동물이 나오는 소설로 큰 성공을 거둔 작가 헨리다. 그는 상상력을 동원한 비유를 통해 홀로코스트를 다룬 소설을 완성하지만 책으로 펴내기도 전에 혹평을 받고 글쓰기를 그만둔다.

어느 날 그에게 의문의 소포가 배달된다. 그 속에는 당나귀 베아트리스와 원숭이 버질이 주인공인 미완성 희곡 '20세기의 셔츠'가 들어 있다. 희곡은 '셔츠'라는 나라의 동화 같은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헨리는 이 희곡을 쓴 사람을 만나 그가 희곡을 완성하는 것을 돕게 되고, 어둡고 거칠고 두려운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끌려들어 간다. <작가정사·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Easet Korea,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providing contact details for the agency.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ana Real Estate, highlighting a property in Gwangju and offering services for land and house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ana Real Estate, focusing on land and house sales in Gwangju,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agent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ana Real Estate, listing various types of properties for sale and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